

(제시문)

A는 서울 구치소 소속 교도관으로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. A는 2024. 5. 13.(월요일)에 연가휴가원을 제출하였다. 그런데 소속 기관장 B는 해당 날이 A의 24시간 근무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, 공무원 휴가 관련 예규 및 업무지침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24. 5. 14.(화요일)까지 1일간을 연가로 처리하였다. 이에 따라 B는 연가보상비 지급일인 2024. 12. 27.에 A에게 위 1일분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.

(참조법령)

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(대통령령 제35893호)

제16조(연가계획 및 승인)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·사(公·私)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⑤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
[물음1] A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시오. (25점)

[물음2] 만약 A가 B를 상대로 연가보상비 지급거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다가 위 소송을 유지하면서 여기에 새로이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연가보상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신청하였다고 가정한다. 수소법원은 이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시오. (25점)